

# 불교생태철학 기초 세울 총론 나왔다

## 김종욱 씨 '불교생태철학' 발간... 정의·구조정립·불교적 성찰 등 담아

"대승불교의 핵심인 연기·공·자비는 각각 상호의존성·비실체성·상호존중성으로 해석됩니다. 이 도식을 불교생태철학의 기본 구조로 삼아 불교생태철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타인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불교를 환경위기 극복의 사상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면밀한 근거 찾기와 방법론 정립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시점에 나온 김종욱 박사(44·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생태철학>은 불교생태철학을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김 박사는 오랫동안 불교 현대화를 화두로 불교사상과 서양철학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고, 동국대 불교생태학 특성화추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

이 책은 김 박사가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자신의 불교생태철학 관련 논문들을 묶고, 보충 집필한 것으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기획한 불교생태학총서 첫 번째 책으로 나왔다.

불교생태철학의 기본 구조 정립과 아울러 생명의 불교생태학적 정의, 자연의 도덕적 지위,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불교적 성찰 등을 담아 불교생태철학의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각론을 담지 못해 아쉬지만 불교생태철학 연구 초기인 만큼 총론 마련이 시급했다"며 "불교학과 철학, 그리고 생태학의 학제간 연구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불교학과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를 전공한 그가 불교생태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5년 전, 모 대학에서 환경윤리 강의를 맡은 게 계기였다.

당시 환경윤리 분야에서 유명세를 타던 저술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해 있었던 것. 이때 불교적 관점을 도입한 불교생태철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후 동국대가 지난해부터 가동한 불교생태학 특성화 추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불교생태철학 연구에 본격 화했다.

책은 5부로 구성됐다. 제 1부 '불교생태철학의 기초'에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인 상호의존성, 순환성, 항상성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제 2부 '불교생태철학의 전개'에서는

불교의 증생관에 담긴 상호의존성을 규명하는 한편, 동물해방론·생명중심주의·생태중심주의 등 서구의 다양한 환경윤리의 한계 극복에 불교사상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제 3부 '근대성의 성찰과 불교생태철학'은 저술의 완성도를 위해 보충집필한 부분이다. 저자는 과학·시민·산업혁명으로 형성된 서양 근대 사상의 실제적 사유와 합리성의 맹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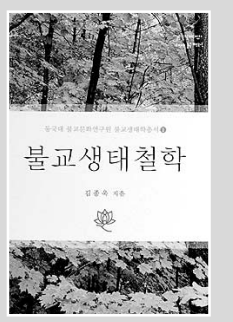
제 4부 '불교학자와 생태학자의 대화'는 앞의 논문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평이한 대화를 통해 불교생태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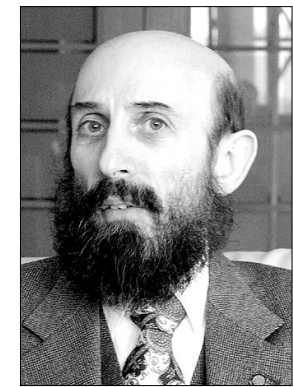
김 박사는 "상호의존성" "상호존중성" 등을 심도 깊게 다룬 각론 성격의 저술과 '생태계 존중을 위한 불자생활수칙'과 같은 세부 행동지침서를 개발해 불교생태철학이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김종욱 연구교수(왼쪽)의 저서 <불교생태철학>은 불교학·철학·생태학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동국대 김종욱 연구교수(왼쪽)의 저서 <불교생태철학>은 불교학·철학·생태학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현대교육 죽음 외면 범죄·인간 소외 증가

## 죽음학 대가 칼베커 교수의 '죽음 교육' "죽음을 잘 배워야 잘 산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던 이들도 그런 경험 후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문하게 되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베커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죽음 교육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2005년에 400만 달러 규모의 죽음 교육과정 개발 예산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죽음교육이 높은

자살률, 범죄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베커 교수는 "한국 또한 죽음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문화에 입각한 한국적인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커 교수는 또한 "죽음 교육에 부채임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다"며 "불교는 원죄와 같은 말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윤회 사상으로 죽어가는 이에게 심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죽음 교육의 효용에 대해 베커 교수는 "범죄·자살 방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 비용절감 효과를 내기도 하지"

죽음 교육의 효용에 대해 베커 교수는 "범죄·자살 방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 비용절감 효과를 내기도 하지"

## '1문화재 1지킴이' 본격화 문화재청, 신규모집 등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전운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본격 추진해갈 것임을 밝히고, 문화재지킴이 신규모집 및 활동 사례 수집에 들어갔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제한은 없다. 개인·가족·단체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문화재를 지정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www.ocp.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상태 모니터링, 문화재 주변 청소 등 정화 활동, 문화재 소개 등 홍보 활동, 문화재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익순 기자

## 해외소장 한국전적 문화재 웹 서비스 개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최근 해외 소장 한국전적 문화재현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해외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자료관' (koreanbooks.nrcp.go.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되는 자료는 한국서지학회와 해외 전적조사연구회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일본·프랑스 등 3개국 10개소에 소장된 한국 전적문화재 6500여종 26,700여 권을 조사한 결과로, 편저자·판종·간행년도·서발(序跋) 등의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외 소장처와 협의해 중요자료에 대한 원문자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기사 넘쳐 '우회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은 쉽니다.

## "1급으로 격상·기능 강화 시급"

###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상 올리기 나서 국제학술회담에서 '국립문화유산원' 제안

1969년 문화재연구소로 출발, 35년 동안 국가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온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지만 역할에 걸맞지 않게 소장 3급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침묵을 지키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위상 격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이하 연구소)는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급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를 1급 기관인 '국립문화유산원'으로 격상 △국립문화재종합병원 신설 △조직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 섞인 '안'을 공개한 데 이어 12일에는 대전대덕권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국가문화유산 연구기관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효율적 체계수립'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담에서는 그 '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학술회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가속화 △근대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유산 개념 확대 △비지정문화재 보존 요구 증대 △역사문화환경 보존 개념 등장 △문화유산보존 시민운동 활성화 △문화유산 조사·연구법 인 증가 등을 주된 환경변화로 꼽았다. 이어 김 소장은 그에 따라 연구소는 △연구기능 강화 △문화재보존 조사연구기능 활성화 △정책연구기능 신설 △연구소를 문화유산 보고(寶庫)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연구기능활성화와 효율적 체계수립' 주제의 국제학술회담회 토론시간. 왼쪽부터 김봉건, 배기동, 신창수(사회) 안휘준(서울대), 이강승(충남대). 사진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 김규호 공주대 교수는 "국내의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존 프로그램을 운용해야한다"며 "동아시아 문화재 공동연구 및 외국 소장 한국문화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현행 보존처리시설을 확대 개편해 문화재

보존·수리·복원 전문기관으로 육성시켜야한다"며 "국립문화재 종합병원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폭증하는 발굴조사 관련해서는 "발굴 기술 연구 및 보급·교육 기능을 갖춘 매장문화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발굴기관을 통합하고 지도감독하며 교육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 장유화상 칠불 후불 탕화 점안 및 문화원 개원 법회

함께하는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등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고 칠불을 탄생시킨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자인 김해 20만 불자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사)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되어 보육국사 장유화상과 칠불 후불탱화점안 및 문화원의 개원법회를 다음 일시에 봉행하오니 일생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뜻 깊은 법회에 동참하여 행복이 넘치는 법회가 되게 하소서

불기 2548년 11월 일  
(사)가야불교문화원 사부대중 일동 합장

■ 법회일시 : 불기2548년 11월 28일(음력 10월 17일) 일요일 점심식 오전 10시  
■ 법회장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사)가야불교문화원

(사)가야불교문화원 055)322-0088, 322-1675